

주간기도정보

2025. 3. 1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건물 짓는 선교는 이제 그만… 현지교회 중심으로 동반자 선교를”

KWMA, 지난 13-14일 ‘한국 복음 전래 140주년 기념 총회장 간담회’ 개최



“세계 선교 환경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앞세워 하는 선교는 지속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돈을 들여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벌이는 선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는 연이어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만 여기던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KWMA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한국 복음 전래 140주년 기념 총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대홍 선교사는 “세계 선교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 교단과 지역교회에서는 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선교의 정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 한국교회에 필요한 전략과 태도는 무엇인지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직하게 한국 선교를 얘기해 보자.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고 자부하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자기 사역을 했을 뿐 현지 교회를 돋지 않았다. 그러다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 자기 이름으로 남긴 재산 쳐리가 문제가 됐다. 그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결국 사역이 지속되지 못하고 분란만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사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방식은 우리가 경험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방식을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찾았던 선교사들은 이곳에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의 확산에 큰 보탬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선교의 바탕을 이어받은 글로벌 사우스 권역의 교회는 그럴만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선교지에 이미 교회와 현지 교단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강 선교사는 “앞으로 선교의 키워드는 ‘현지인’이다. 선교지에 가서 ‘내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동역해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목사 선교사가 계속 필요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필리핀이나 태국은 현지 교단이 있어서 더이상 신학대학원(M.div)을 마친 목사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동 같은 전방개척지역은 어차피 목사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총회장들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 김종혁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는 “지금은 개별 교단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선교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대다. 선교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자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린도전서 2:3-5)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사도행전 11:26)

하나님,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그간의 순종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선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협력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데 힘썼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터와 제자들이 세워졌는지 혹, 불타 없어질 공적이 세워진 건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선교가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혼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고 열방 곳곳마다 예수교회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을 속히 이뤄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북한 관광 다녀온 외국인 관광객 “화장실도 말하고 가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하는 암울한 광경…‘평화 기원’도 위험



코로나 팬데믹으로 5년간 잠겼던 빗장이 풀리면서 ‘베일 속’ 북한 사회를 엿보고 오는 서방 관광객들의 후일담이 잇따르고 있다. 강력한 통제 속에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바깥 세상의 정보는 제한적이나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눈에 담고 돌아와 전한 현지의 모습을 보도했다. 28세의 영국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는 악명 높은 북한 당국의 ‘관광객 통제’를 실제로 당해보니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놀랐다고 전했다.

모든 관광객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맥주 공장과 학교, 약국 등 철저히 정해진 일정대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몇 번인가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미리 알려야 했다”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탄도미사일의 목표물 명중 장면을 형상화한 무용을 선보였다고 한다.

오케네디는 직접 들여다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두고 “모두가 일하고 있었고,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다”며 “암울한 광경이었다”고 회상했다. 철저히 감시받는 여행은 때로 공포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루는 ‘북한·러시아 우정의 집’을 관광한 뒤 방명록에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고 적었는데, 이후 가이드가 다가와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편집증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 출신으로 세 번째 북한 관광길에 오른 조 스미스는 과거보다 더 사정이 어려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미스는 “호텔 방을 제외하면 난방도 되지 않았고 불빛도 희미했다”며 더러운 호텔 방 창문에는 전체에 금이 가 있었다고 한다. 또 사진 속에 깨끗하게 보이는 북한의 거리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길은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은 흔들리고, 건물들은 이상하게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스미스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나 있었다”며 “보이는 것에 민감한 북한이 할 수 있던 최선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바깥의 실상은 어떨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북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일정으로 ‘명품 시장’ 방문을 꼽았다. 시장에서는 청바지와 향수, 가짜 루이비통 핸드백, 일제 세탁기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인들과 접촉이 잦은 관광 가이드들도 북한 바깥의 세상에 대해 제법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밀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골로새서 4:2-4)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아 너를 기뻐하시리라(이사야 62:1,5)

하나님, 북한 관광이 다시 개방되었으나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공포감마저 준다는 소식에 여전히 닫혀있는 북한의 빗장을 보게 됩니다. 외부인에게 조차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 땅의 어둡고 비참한 실상이 오히려 이 소식을 들은 몸 된 교회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쉬지 않는 기도로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밀하게 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시온의 의가 빛 같이, 구원이 횃불 같이 북한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북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순결한 믿음을 가진 신부 된 교회를 통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신랑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18회 학교기도불씨운동 ‘더 웨이브’ 성료,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더 웨이브, 침체된 학교에 기도의 불 지펴



메마른 학교에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8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린 제18회 학교기도불씨운동 ‘더 웨이브(THE WAVE)’에서다. ‘학교기도불씨운동연합’이 주최하고 ‘부산학교기도불씨운동’이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등 2천700여 명의 다음세대가 참여했다.

‘학교기도불씨운동’은 학교 내 기독 동아리와 기도모임의 활성화는 물론 다음세대의 영적 성장을 돋기 위해 부산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2016년부터는 ‘더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현재는 서울과 대구, 대전, 원주, 제주, 포항 등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부전교회 본당 앞에서는 대명고, 해강고, 동주여고 등 12개 학교가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게임, 퀴즈, 팔씨름 등을 진행했다. 문시후(19) 이사벨고 기도장은 “작년에 더 웨이브를 통해 우리 학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며 참여 소감을 말했다.

강사로 나선 김상인 목사(김포 움직이는교회)는 ‘자유한 종의 삶을 시작하라’(신 15:16-17)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학교와 학원, 가정 등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김민성(대동고), 전민혁(해강고), 양규정(사직고), 김기쁨(해운대여중), 최은민(경혜여고) 학생은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해 △학교기도불씨운동이 전국 학교로 확산되길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길 △학교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믿음을 주시길 △불신자 학생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으로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다.

홍정수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학교기도불씨운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시작된 사역이다. 그리고 이 사역이 먼저 기도 모임을 만들자는 것으로 출발했다. 학생들이 더 웨이브 집회에서 믿음의 결단한 후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우리 사역”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더 웨이브를 통해 많은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큰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기도불씨운동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에 기도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학교 기도 운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돋겠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기도24.365본부 종합).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사도 행전 22:14-15)

하나님, 학교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주의적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청소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지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사에서 함께 간구했던 것 같이 학생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들이 돌아간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학교가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선교지 같은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택하심을 입은 다음세대가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여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부산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씨가 이제는 한국과 다음세대를 넘어 전 세대와 열방으로 번져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